

2026년 아시아미디어서밋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 기 간 : 2026. 5. 12.(화) ~ 5. 15.(금), 2박 4일
- ◆ 방문국가 : 몰디브(빌라 노티카)

2026.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 차

I . 출장 개요	1
II . 출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
III . 주요 활동별 결과	4
①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사무총장 면담	4
②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세션 (세션7) 발표	10
③ '27년 AMS 한국 개최권 이양	17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6년 아시아미디어서밋(AMS) 행사 참석을 통한 국제 기구와의 정책 공조 강화
 - (정책 협의)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27년 AMS 한국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 사항 및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논의(5.13.)
 - (세션 발표) 정책 세션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시민을 위한 평생 미디어 교육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미디어 혁신 모델 대외 확산(5.13.)
 - (개최권 이양식) 차기('27년) 개최국 지위 공식 승계(몰디브→한국) 및 수락 연설 등을 통해 성공적 국내 개최 동력 확보(5.13., 폐회식)
2. 출장 기간 : '26. 5. 12.(화) ~ 15.(금), 2박 4일
3. 출장 국가 : 몰디브(벨라 노티카)
4. 대표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반상권 대변인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순원 사무관	김진 통역사 박다란 선임연구원

5. 주요 일정(안)

일 자	시 간	일 정 (항공편 이동)
5.12.(화)	11:05-16:35	인천 → 싱가포르 (6h 30m), SQ 611 ※ -1시간 시차발생
	20:25-21:50	싱가포르 → 몰디브(4h 25m), SQ 438 ※ -3시간 시차발생
5.13.(수)	10:00-11:00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사무총장 면담
	13:45-15:00	정책 세션7 발표
	17:00-17:30	폐회식 및 '27년 AMS 한국 개최 이양식(handover)
5.14.(목)	13:05-21:05	몰디브 → 싱가포르(5h), SQ 431 ※ +3시간 시차발생
5.15.(금)	00:20~07:45	싱가포르 → 인천(6h 25m), SQ 608 ※ +1시간 시차발생

Ⅱ. **출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① '27년 AMS 한국 개최 준비 본격화

- 방미통위는 금번 출장을 통해 '27년 AMS 한국 개최를 공식화하고, AIBD 사무국과 행사 시기·규모·참석자 수준 등 주요 준비 방향 협의
 - 한국 '방송의 날'(9.3.)과 연계한 개최 시기, 방미통위원장 명의 초청을 통한 고위급 참석 확대 등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제시
- AIBD는 한국 개최 취지에 공감하고 회원국 참여 독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원활한 준비를 위해 행사 계획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7년 AMS는 한국 방송 도입 100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국제 미디어 행사인 만큼, ▲개최 시기·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개최지 선정, ▲소요 예산 확보,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할 필요

② '27년 AMS 준비를 위한 AIBD와의 협력 채널 구축

- 방미통위는 '27년 AM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BD 사무국과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수시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채널 구축 필요성 확인
 - 방미통위는 개최 준비 과정에서 주제·프로그램·연사 등 주요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AIBD 사무국에 직원 파견 제안

- AIBD는 파견 필요성에 공감하되, 말레이시아 정부 승인, 비자·체류 자격, 파견자의 역할·기간 등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o 방미통위는 '26.9월 IBCC에 필로메나 사무총장 초청을 제안한 바, 同 계기를 활용하여 양 기관 간 MOU 체결 협의

◆ '27년 AMS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AIBD와 ▲주제·프로그램·연사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할 실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6.9월 IBCC 등을 활용한 기관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향후 AIBD와의 지속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③ 방송미디어 정책 협력 의제 확산

- o 방미통위는 정책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체계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 기반 인프라를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기 미디어교육의 중요성 공유

◆ 디지털 전환·AI 확산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한 국가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미디어 정책 경험을 AIBD 등 다자 무대에서 지속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정책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글로벌 미디어 정책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

Ⅲ. 주요 활동별 결과

①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사무총장 면담

□ 개 요

- 일 시 : '26.5.13.(수), 10:00~11:00
- 장 소 : 빌라 노티카 內 회의실(로아누 룸)
- 면담자
 - (방미통위) 반상권 대변인,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순원 사무관, 김성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 통역사, 박다란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AIBD) 필로메나 그나나프라가삼 사무총장, 레온 디네시 법률 자문관, 아인 오스만 회계담당관, 폴 수세이 사업자문역

□ 주요 내용

【'27년 AMS 한국 개최 실무 협의】

- (행사 규모·성격) 방미통위는 '27년이 한국 방송 도입 100년 및 AIBD 창립 50주년이 겹치는 상징적 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 방송 업무 일원화 후 추진하는 첫 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서밋(Summit)"다운 규모와 내용으로 준비할 의사를 표명
 - AIBD는 내년 AMS의 의미에 걸맞은 규모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제기구 등 AIBD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국 개최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

- (초청 지원) 방미통위는 장관급 등 고위급 참석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 명의 초청 서한을 발송할 계획으로, AIBD의 협조도 요청
 - AIBD는 개최국 정부 명의 초청장 발송 필요성에 공감하며, 초청 대상 자문 및 회원국 참여 독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
 - 아울러 AIBD는 개최 도시의 인지도에 따라 참석 규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개최지 결정 시 홍보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 (일정·주제) 방미통위는 한국의 '방송의 날'(9.3.)과 연계한 개최 시기 조율 및 내년 AMS의 의미를 반영한 주제 선정 등 행사 준비 과정에서 AIBD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
 - AIBD는 방미통위의 개최 취지와 시기 조율 필요성을 이해하며,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방미통위와 긴밀히 협의하자는 데 동의
- (예산·과거 사례) 방미통위는 예산 편성 등 효율적 준비를 위해 과거 개최 사례 등 참고자료를 요청
 - AIBD는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으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 행사 계획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AIBD 사무국 인력 파견 】

- 방미통위는 '27년 AMS 개최 준비 지원 및 양 기관 상시 협력 채널 확보를 위해 방미통위 직원의 AIBD 사무국 파견을 재차 제안
 - 구체적 파견 조건(비용 분담, 협조 서한 등)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함
 - AIBD는 인력 파견 필요성에 공감하되, 본부 소재국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 비자·체류 자격 등 실무 검토가 필요하며, 파견자의 직급 및 역할·기간 등은 추후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

【MOU 체결 방안】

- (Pre-MOU 제안) AIBD는 '27년 AMS 개최를 위한 MOU 체결 관련, Pre-MOU 문안을 제시하며 개최권 이양식에서 서명을 제안
 - 방미통위는 同 문안을 면담 자리에서 처음 공유받아 내부 검토 및 서명 권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 이번 폐회식에서 서명을 하기보다 추후 실무 채널을 통해 Pre-MOU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AIBD도 동의
 - (IBCC 계기 MOU 체결) 방미통위는 '26.9월 한국에서 열리는 방송 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IBC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production Conference)에 필로메나 사무총장 등 AIBD 관계자 초청을 제안
 - 양측은 필로메나 사무총장의 '26.9월 IBCC 참석 및 同 계기 양 기관 간 MOU 체결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 '24년 IBCC에 필로메나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

대표단과 AIBD 관계자 간 기념촬영



대표단과 AIBD 사무총장 회의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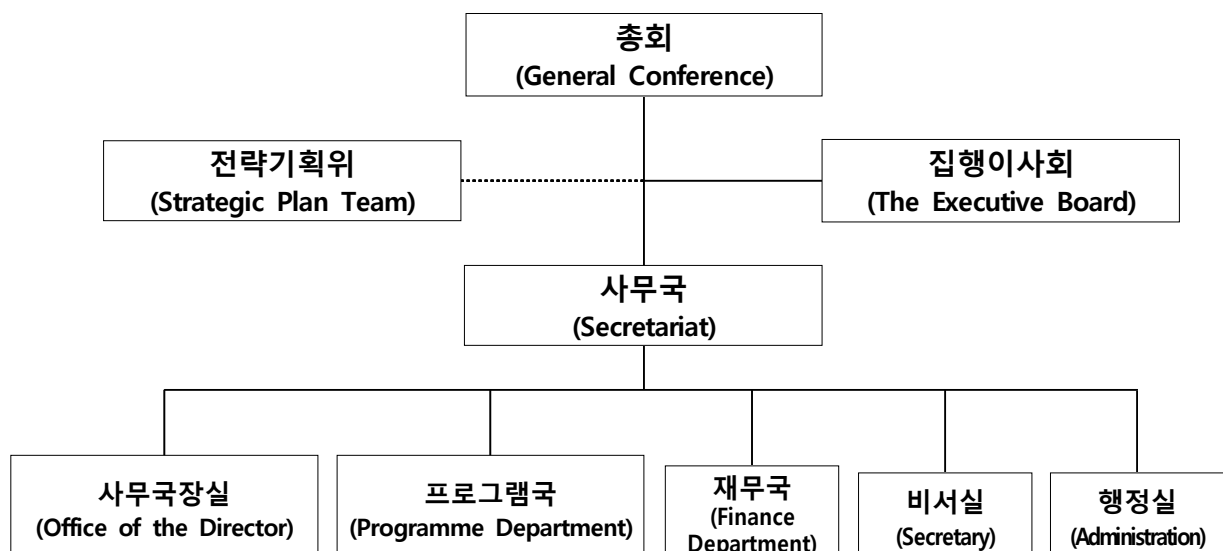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기관 개요

□ 개 요

- (기관명)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 (설립일 / 소재지) '77.8.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사무총장 : Philomena Gnanapragasam ('19.8 취임, '23.9 연임 결정)
- (설립 목적) 유네스코(UNESCO) 주도 아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ESCAP) 지역 내 전자 미디어 발전 촉진을 위해 설립
- (회원국) 총 26개국, 91개 정·준회원
 - 정회원국 :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태국, 베트남 등

구 분	회원국(기관)	회원자격	비고
정회원	26개국 47개	UN ESCAP 가입국 정부부처 및 국·공영 방송사	과기정통부 → 방미통위 변경('26.3.)
준회원	29개국 38개	가입자격 제한없음	

- (구성) 총회(General Conference) 및 집행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이며, 총회 지휘 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 주요 활동

-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서비스) AIBD의 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5,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미디어 관련자가 참가했으며, 매년 약 50개국 1,500여명이 참가
 - 현재 75개 분야로 세분화 된 맞춤형 연수와 더불어, 관련 협회 및 방송사와의 합동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였으나, '06년부터 KBS가 AIBD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방송사에 컨설턴트를 파견한 바 있으며, 선진제작기법 및 시스템 구축 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 중
- (역내 대화체 마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서 '04년에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 Asia Media Summit) 출범
 -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개국 500여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가

□ 관심 분야

- AIBD는 ▲디지털·플랫폼 시대 전환 대응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 ▲역량 개발 및 협력 ▲미디어 협력 기구로서 AIBD 위상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플랫폼 전환 대응	• OTT·SNS·모바일퍼스트 환경에 맞는 공영·상업 방송사의 제작·유통 전략 지원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	• 팩트체크·미디어 리터러시·위기 보도 훈련 프로그램 확대

구분	주요 내용
역량 개발 및 협력	- 기자·제작자·경영진 등을 위한 맞춤 훈련, 하이브리드/온라인 코스 확대 - 국경을 초월한 방송사 간 공동제작, 인적 교류, 콘텐츠 교환 플랫폼 강화
규제 개혁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경 간 자유로운 콘텐츠 흐름 보장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접근 방식 추진
AIBD 위상 강화	- 총회 의사결정 방식 및 형식 규정 - 펀딩 다변화, 파트너십 확대(UN, EU, 기타 지역 기구 등)

- AIBD는 '25년 총회('25.8.19~21., 태국 푸켓) 전략기획팀 회의에서 향후 3개 운영위원회(▲신기술 ▲콘텐츠 ▲지속가능성)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AIBD가 미래 활동에서 주력할 분야를 제시

분야	중점 활동
신기술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미디어 운영 및 효율성 향상 추구
콘텐츠	디지털 시대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품질의,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제작 촉진
지속가능성	미디어 부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전략 개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회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 등
 - ※ 정부기관, 방송사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나 정부기관이 회원국을 대표함
- '77년 설립 당시 한국방송협회와 KBS가 참여
- 한국 정부는 '78년 AIBD 설립협정에 서명('78.11.10.), 비준서를 AIBD 사무국에 기탁('78.12.12.), 당시에는 한국방송협회 명의로 가입
- 2000년대 이후 방송위·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을 거쳐, '26.3월 방미통위로 대표 창구 이관

②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세션 (세션7) 발표

□ 개 요

- 일 시 : '26.5.13.(수), 15:00~16:00
- 장 소 : 빌라 노티카 內 회의실(디나샤 홀)
- 주 제 : 「디지털 전환 - 방송의 변화 이야기(Digital Transformation - The Story of Broadcasting in Transition)」
- 좌 장 : 발라 수브라마니, 말레이시아 아스트로 라디오 최고기술책임자
- 발 표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
아구스티누스 수르얀토, 인도네시아 국영방송 기술제작국장
아밀라 아무누가마,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컨설턴트
베라르 뒤프레, 세이셸방송공사 사장
케빈 오클리, 싱가포르 벤치마크社 최고사업책임자
수흐바야르 수흐바타르, 몽골 국영방송 최고기술책임자
비노시 제임스, 쉐컴 인도법인 기술표준 디렉터

□ 주요 내용

【방미통위 : 디지털 시민을 위한 평생 미디어교육(Lifelong Media Education for Digital Citizens)】

-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방미통위는 기술 인프라 전환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미디어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미디어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
- 디지털 전환이 콘텐츠 접근·생산·공유 방식을 빠르게 바꾸는 한편, 디지털 격차·사회적 고립·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 확산 등의 과제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

-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 안전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돕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미디어교육의 역할 제시
- **(한국의 미디어교육 소개)** 정책과 실행이 연결된 추진 체계를 토대로,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포용적 교육을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제공 중임을 소개
 - (추진 체계)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방미통위와 교육 실행을 담당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역할 분담·유기적 협력 등 정책과 실행이 연결된 한국 미디어교육 체계의 강점 설명
 - (생애주기 교육) 유아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노년층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격차 해소와 디지털 소외 방지 추진
 - (인프라) 전국 12개 지역 거점을 대상으로 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도서·산간 및 취약지역 대상 미디어나눔버스,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온플러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소개
 - (성과·과제) 전 생애주기 교육 개발과 온·오프라인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센터 이용자 증가 등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를 설명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접근성 제고, 취약계층 참여 확대, AI 환경에 맞춘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제시
- **(국내외 협력 강화)** 미디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국내) 방미통위·과기정통부·교육부·성평등부 간 MOU 체결 등 관계부처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체계 정비 사례 소개
 - (해외) 미디어교육 국제컨퍼런스,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 싱가포르·에티오피아 등 해외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여건에 맞춘 공동 협력 모델의 필요성 제언

【기타 패널 주요 논의】

- (방송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전략) 방송 인프라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의 기술·비용 과제에 관해 각국 사례가 논의됨
 - 아밀라 아무누가마(국제전기통신연합)는 아시아 10개국 등 24개국의 방송 표준·정책·로드맵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하이브리드 브로드밴드 모델, 브로드밴드·모바일 네트워크 융합, 에너지 효율적 방송 인프라 구축 필요성 강조
 - 베라르 뒤프레(세이셸방송공사)는 세이셸의 아날로그 TV 종료, 멀티 플랫폼 전략,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소비 변화 속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한계와 모바일 전환의 필요성 언급
 - 아구스티누스 수르얀토(인도네시아 국영방송)는 위성·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역할, 4K 전송 시스템 도입의 비용 문제, 모바일 중심의 소비 트렌드, 일부 지역 4K 시범 운영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실무 경험 공유
-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 및 AI 활용)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확장 방안이 논의됨
 - 비노시 제임스(퀄컴 인도법인)는 25년간의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TV 이탈과 OTT·앱 중심 소비, 데이터 기반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I를 활용한 다언어 버전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제시
 - 수흐바야르 수흐바타르(몽골 국영방송)는 음악·콘서트 실시간 스트리밍, 중국 내 몽골인 대상 서비스, 로블록스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메타버스 내 음악 소비 트렌드 등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 양상 소개

- (방송·통신 분야 협력)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통신 사업자 간 협력 필요성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 협력 방향이 논의됨
- 케빈 오클리(싱가포르 벤치마크社)는 시청자에게 개별 전송하는 모바일 방송 방식은 동시 접속자가 늘수록 한계가 있는 반면, 지상파 방송은 대규모 동시 송출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
- 이를 토대로 양 방식의 장점을 살린 방송·통신 사업자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5G 등 신기술 기반 방송 서비스 실증 현황 소개

세션 7 연사 소개



방미통위 미디어교육 발제





01

Background

LIFELONG MEDIA EDUCATION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ompanied by digital divides and adverse effects

- Concerns over social isolation and weakening of community functions
- Deepening digital divide among vulnerable groups
- Risks and adverse effects of digital Media
 - Abuse of AI technology
 - Misinformation/disinformation and deepfake content

Support to make digital space a venue for cooperation

- The current situation is both an opportunity and a crisis
- Support is needed for an inclusive digital communication society
- Media education as a foundation for public value and inclusive media access



01

02

Details: Project Execution Framework

LIFELONG MEDIA EDUCATION

Roles and Functions between KMCC & CMF



[Policy Making]

- ›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tect viewers' rights
- › Modifying laws and legal framework related to viewers' rights
- › Establishing Community Media Centers through subsidies to promote viewers'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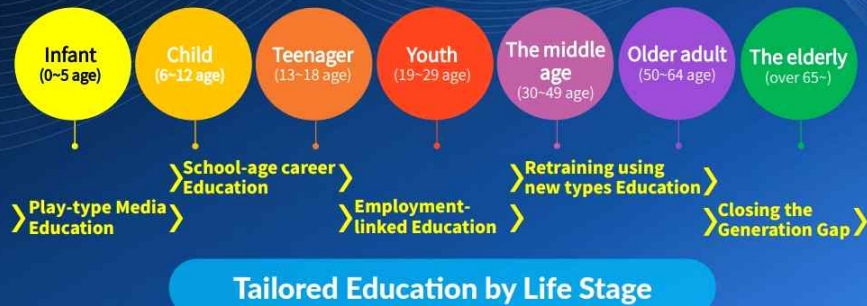
[Project Implementation]

- › Providing media education for viewers
- › Strengthening access to broadcasting for underserved populations
- › Supporting viewers' participation in broadcasting
- › Managing Community Media Centers

02

Details: Education System

Media Education Across the Life Cycle



03

Details: Infrastructures

Community Media Center



04

Details: Major Achievements

Major Statistics

1,026,269 1,164,316 1,450,277



2023



2024



2025

Users of
community
media
centers

Number
of AI media
classes

518



2023

1,629



2024

2,907



2025

433,037



2023

496,143



2024

599,614



2025

Participants
in media
education

Improvement
in users'
media
competency

6.18%



2023

6.75%



2024

7.47%



2025

05

03

Future Plan

LIFELONG MEDIA EDUCATION

Expansion of Cooperation and Networks



Global Fact-Checking Conference & Competition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untering Disinformation

Countering Fake & Distorted Info: Fact-checking, Tackling Dis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Literacy Skills (International Symposium)

Inter-Ministerial MOU

- ▶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 ▶ Ministry of Science & ICT
- ▶ Ministry of Education
-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미디어 교육 2026-2027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청량동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3. 28.(화) 10:00 | 서울대신문기자클럽(신촌캠퍼스)



06

03

Futur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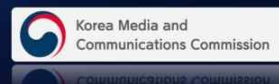
LIFELONG MEDIA EDUCATION

Expansion of Partnerships



Work together to explore a
Shared Regional Framework

07



③ '27년 AMS 한국 개최권 이양

□ 개 요

- 일 시 : '26.5.13.(수), 17:00~17:30, 폐회식 중
- 장 소 : 빌라 노티카 內 회의실(디나샤 홀)
- 참석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
아흐메드 샤킵, 몰디브 국영방송 대표이사 ※ '26년 AMS 주관
필로메나 그나나프라가삼, AIBD 사무총장

□ 주요 내용

- (개최권 상징물 이양) 방미통위 반상권 대변인은 '26년 AMS 주관 기관인 몰디브 국영방송의 아흐메드 샤킵 대표이사로부터 AMS 개최권 상징물을 전달받아, '27년 AMS 한국 개최 공식화
- (이양 메시지) 반상권 대변인은 '26년 AMS를 성공적으로 이끈 몰디브 국영방송과 AIBD 사무국에 감사를 포함
 - '27년은 한국 방송 도입 100년이자 AIBD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AIBD 사무국 및 역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27년 AM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 협력의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 (방미통위원장 환영 메시지) 이어서 방미통위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 상영
 - 김종철 위원장은 한국이 '27년 AMS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여긴다는 뜻을 전하고, 한국 방송 도입 100년을 맞아 서밋을 개최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의 경험을 함께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

- 각국 미디어 관계자들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27년 AMS를 성심껏 준비 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에서의 재회를 기약
- (폐회사) 필로메나 AIBD 사무총장은 참석한 각국 대표단 및 관계자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서밋에서 AI·신뢰·청년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
- 아울러 AIBD가 AI 및 신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지역 협력과 정책 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며, '27년 한국 AMS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회원국에 요청

AMS 개최권 상징물 이양



방미통위원장 환영 영상 메시지 상영



참고 3

아시아미디어서밋 개요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 '04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일의 정상급 국제방송회의
-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개국 500여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가

< AMS 연혁 및 주요 의제 >

구분	시기	주제	장소
1차	'04.4.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차	'05.5.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 증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차	'06.5.	지역과 문화간의 대화 조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차	'07.5.	재림(再臨), 재고(再考), 재충전 및 혁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차	'08.5.	새로운 비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차	'09.5.	미디어와 능력 구축	중국 마카오
7차	'10.5.	창의, 신뢰, 권리, 책임	중국 북경
8차	'11.5.	디지털미디어의 확산: 방송의 역할 재정립	베트남 하노이
9차	'12.5.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 영향력 창출	태국 방콕
10차	'13.5.	방송의 미래 논의	인도네시아 발리
11차	'14.5.	방송 경험의 확대	사우디 제다
12차	'15.5.	소셜미디어 시대의 방송의 변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3차	'16.5.	미디어 콘텐츠의 새 지평	한국 인천
14차	'17.6.	글로벌 발전의 선봉으로서의 미디어	중국 청도
15차	'18.5.	아시아 지역의 스토리텔링	인도 뉴델리
16차	'19.6.	미디어 디지털화- 개도국 시장에 초점	캄보디아 시엠립
17차	'22.5.	미래를 향해: 미디어 이미지의 재정립	피지(코로나로 온라인 개최)
18차	'23.5.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미디어	인도네시아 발리
19차	'24.9.	미디어 : 새로운 오디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차	'25.7.	우수성 20주년 기념 및 그 이후	캄보디아 시엠립
21차	'26.5.	몰디브 2.0 : 전통에서 기술로	몰디브 빌라 노티카